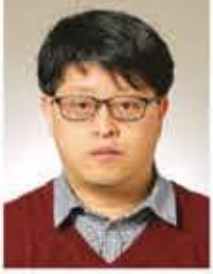




환경



오창국 목사
백운교회

최근 발표된 '농가소득 5467만 원, 역대 최고'라는 통계는 눈부시다. 정부는 이를 성과로 자평하고, 언론은 "농촌 살림살이 개선", "농가소득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낸다. 상승하는 그래프와 정돈된 도표는 얼핏 명쾌해 보인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숫자 어디에도 진짜 농민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새벽 네 시 어둠 속에서 밭으로 향하는 농민의 굶은 허리, 폭염과 병해 속에서 썩어 들어간 과수의 냄새, 대출 이자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의 한숨은 통계 안에

서 흔적 없이 지워진다. 숫자는 평균을 말하지만, 인간의 삶은 결코 평균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이번 농가소득 증가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더욱 그렇다. 축산 수입 증가와 일부 과수 가격 상승, 그리고 정부 보조금 성격의 이전소득 증가가 한데 묶여 만들어진 결과다. 비농사 농민과 채소 농민, 축산 농민의 현실은 전혀 다른데도 하나의 평균값으로 포장된다. 이는 깊은 감과 얕은 웅덩이를 평균 내어 "수식은 안전합니

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다. 정작 농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숫자는 따로 있다. 비료값, 사료값, 인건비, 농약값, 기름값, 그리고 갈수록 늘어나는 대출 이자다. 정부는 "농업소득 22.3% 증가"를 강조하지만, 농민들이 먼저 바라보는 것은 평균 부채 4771만 원이라는 현실이다. 소득이 늘었다는데 왜 삶은 더 팍팍해졌는가. 그 이유는 숫자가 삶의 감각과 고통의 깊이를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숫자가 위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숫자는 인간의 고통을

압축하고 비인간화한다. 전쟁 보도를 떠올려보자. "사망자 3만 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순간, 한 아이의 이름과 한 어머니의 절규는 사라지고 차가운 데이터만 남는다. 만약 우리가 단 한 사람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숫자는 고통을 잡게 가능한 대상으로 바꾸고, 결국 인간의 비극을 무감각하게 소비하게 만든다.

농업 통계 역시 다르지 않다. "농가소득 증가"라는 한 줄 아래 자살률은 여전히 높다. 정말 농촌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면 왜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는가. 왜 농민들은 "이제 좀 살 만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가. 삶의 진실은 종종 통계 밖에 존재한다.

숫자는 울지않는다 - '역대 최고 농가소득' 통계가 감추는 것들

에서 수많은 농민들의 절망은 가려진다. 사과값 상승의 이면에는 우박과 병해로 무너진 과수원의 눈물이 있고, 축산 수입 증가 뒤에는 사료값 폭등을 빚으며 버티던 농가의 상처가 숨어 있다. 이전소득 증가는 농업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농촌 현실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통계가 현실을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덮는 가면이 되어버린 셈이다.

정부와 언론이 "역대 최고"를 외치는 동안에도 농촌 마을은 비어간다. 청년들은 떠나고, 농민들은 대출 연장을 걱정하며, 농촌의

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누구의 삶이 지워지고 있는가를 묻는 일이다.

신앙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기독교는 평균값으로 인간을 바라보지 않는다. 효율과 성과가 아니라 고통받는 한 사람의 무게에 응답하는 믿음이다. 예수는 군중의 숫자가 아니라 길가의 한 병자와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을 바라보셨다. 농민은 통계 속 숫자가 아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엄한 이웃이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결코 평균값으로 설명될 수 없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박창수 목사
· 기독교학 박사
· 기독교경제학(사회윤리) 전공
· 희년사회 연구위원
· 주주권기독교연대 공동대표

가난 때문에 땅을 잃은 사람들이 희년이 오면 땅을 되찾는다. 희년에 토지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희년 토지법의 대전제는,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이다.

레 25:13,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히브리어 '아후자'에 대한 개역개정 성경의 '소유지'(레 25:10, 13)라는 번역은 잘못된 것이다. 가난한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지'가 아니라 유일한 지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용권을 받은 '임차지'이기 때문이다. 레 25:23,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조종 가운데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 그에게 필요한 땅은 그가 물질 무덤 한 평뿐이었다. 그래서 땅에 대해 절대적이고 배타적이며 영구적인 소유권을 얼마 후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보장하려 하는 토지 사유재산제는, 사람의 헛된 탐욕에 기초한 어리석은 제도인 것이다.

땅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땅을 공평하게 선물로 나누어 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토지 평등권을 주셨다. 만민의 토지 평등권은 천부인권(天賦人權)인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창 1:26-27, 9:6).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왕'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창

토지 평등권

있는나라." 따라서 '아후자'는 '소유지'가 아니라 그냥 '땅'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다(창 1:1). 그래서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레 25:23). 어떤 물건이든 그 물건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것이듯이, 땅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은 땅을 단 한 평도 창조하지 않았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땅에 사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레 25:23). 하나님만이 유일한 지주이시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땅을 빌려 사는 나그네일 뿐이다. 그래서 나그네인 사람이 땅에 대해 갖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일 뿐이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전 1:4).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잠시 후면 다시 빈손으로 떠나야 할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이 영원한 땅을 소유하려는 탐욕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레프 톨스토이(Лев Николаевич Толстой, 1828-1910, 러시아)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민담(民譚)을 지어서, 땅에 대한 사람의 어리석은 탐욕을 경계했다. 그 민담의 주인공은 악마의 유혹을 받아 땅을 탐내다가 끝내 악마의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진리에는, 주변 국가들에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모두 왕 한 사람의 노예로 전락시켜 통치하는 왕정(王政)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그리고 더불어, 모든 사람이 왕처럼 고귀하게 평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이 담겨 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구에는 평등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는 창조 명령을 주셨는데(창 1:28), 이 명령에 담긴 깊고 넓은 의미를 가운데 경제학적 의미는 "토지를 사용하여 노동함으로써 부(富)를 생산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이 복된 명령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류에게 주셨다. 그런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다.

따라서 하나님은 "토지를 사용하여 노동함으로써 부를 생산하라"는 이 복된 명령을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게' 주신 것이다. 요컨대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토지의 평등한 사용권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 평등권은 모든 인류의 천부인권인 것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나는 25년 전 결혼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었다. 제주도는 관광지였고 참 아름다운 섬이었다. 몇 년 전 '감자'라는 독립영화를 보기 전까지 말이다. 그 영화를 통해서 제주 4.3 사건을 알게 되었고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책 중에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아픔을 가진 제주를 조금 더 알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내 이름은'이라는 영화를 통해 국가 폭력의 잔혹함과 아픔의 제주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제주의 사건이 있고 30여년이 지나 광주 5.18이 있었다. 그리고 며칠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5.18민주광장에서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5.18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사건이 터졌다.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에서 이벤트 행사를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논쟁은 크게 두 세 가지다. 하

나는 5월 18일 날 행사를 하는데 '탱크'라는 단어다. 1980년 5월 18일 군대는 38선을 지켜야 할 탱크를 들고 광주에 내려와 광주의 지민들을 향해 돌진하며 광주를 고립시키기 위해 애워 썼다. 그들은 전투환을 '전탱크'라고 부른다. 또 하나는 '핵심에 탁'이라는 말이다. 민주화운동 고문에 의해 숨진 고 박종철열사에게 고문을 가했던 사건을 표현하는 문맥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위에서 히히덕거리며 조롱하며 웃고 즐긴다.

"5.18과 탱크데이?"

'일베'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일간베스트'라는 지방신문인데 그 지역의 청년들이 그 사이트에서 일반적이지만 않는 방법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어떤 담은 거기에 맞장구를 치며 같이 조롱한다. 지도자라는 말이 무색하다. 그들 중에는 유명인과 군인과 판사도 있다. 실망을 넘어 절망이 꾸역꾸역 밀려온다. 인간이라면 다른 사람의 죽을 앞에서 그래서는 안된다. 그들은 자유라고 말한다. 자유라

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는다. 제한적이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다. 인간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정신을 생각해야 하고 배려와 존중, 그리고 최소한의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늦추기 위해 RE100 같은 안전장치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전범국가 독일은 법으로 나치를 청산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은 가차 없이 끝까

"5.18과 탱크데이?"

지 추적하여 처벌한다. 선진국에서는 국가의 이미지를 좋게 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엄청난 광고비를 들고 노력을 한다. 유명 브랜드에서는 브랜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다.

발을 가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풀을 뽑는 방법이고 하나는 밭에 좋은 나무나 채소를 가꾸는 방법이다. 나는 첫 번째 5.18을 꺾어버리는 것을 풀 뽑듯 방

어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나 채소를 가꾸듯 5.18을 기록한 노벨평화상을 받은 '소년이 온다' 책의 현장을 전국과 전 세계에 알리는 여행 코스를 개발해 5.18을 바로 알리는 노력을 국가와 광주가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본다. 46년 전 민주화를 위해 저항하고 민주항쟁을 펼쳤던 자랑스러운 광주에 직접 와서 광주를 걸어 보고, 느껴볼 수 있는 광주여행을 통해 독버섯이 이 사회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백번 듣는 것이 실제로 한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다.



최용남

· 한국청소년사역연구소 대표
· 예장통합 전남노회 전도목사
· 행복한 세상, 선명한 미래, 2 저자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자서전·회고록·설교집, 교회사, 요람, 사보, 교회소식지, 동호회집지 등 모든 출판물. 도서출판 미션리

한 평생 앞만보고 달려왔습니까? 이제 잠시 멈춰 서서 달려온 인생길을 되돌아 볼 때입니다. 30년사 189-200. 출판상담: 정선화 편집장 겸 총괄이사 010-4602-7825. 도서출판 미션리 TEL 062-367-9109, FAX 062-367-9108.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69 (3층) / E-mail: phj2930@nate.com